

# 밍크의 질병

김 찬 규\*

밍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때는 25년전으로 오래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육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여우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1981년을 후로하여 점차적으로 농장의 수가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의 총 사육두수는 45,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밍크는 모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로서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모집군에서 대량으로 발생되기 쉽고 치료한다 하여도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적진단 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막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수의사로서의 책무라고 여겨지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Aleutian disease

밍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전염병으로 감염된 밍크의 타액이나 배설물을 통하여 전염되며 이 병에 전염되면 모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많은 폐사를 가져온다.

혈청요법 등의 치료방법이 있으나 치료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므로 최소한 손실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아루시안”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단된 밍크는 즉시 박피하고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감염되었던 밍크는 종축으로 사용하지 말고 도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발생시에는 배설물 등은 땅을 깊게 파서 묻고 사육상자는 단졸과 같은 소독약으로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Distemper

여우의 경우와 같이 개에 감염될 수 있는 이 병이 밍크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가축의 배설물이나 사료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욕이 저하되고 눈, 코가 지저분하며 활동을 기피하고 결국 폐사하는데 폐사율도 높다. vaccination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3. 전염성 장염

일명 virus성 장염이라고도 하며 흡속에 있는 토양균들이 옮겨져 감염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심한 diarrhea를 발하며 때로 혈변을 발하기도 하는데 이때 coccidium 감염과 구별하여야 한다

밍크사육장의 설치시에는 미리 사육장의 바닥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양이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위에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4. 전염성 폐렴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병으로서 증상은 식욕부진, 체온상승 및 호흡이 거칠음을 볼 수 있으며 원인은 녹농균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야생동물병원

치료로는 겐타마이신 등을 주사하고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급성인 경우 폐사하는데 부검소견을 보면 폐가 흑적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5. 내부기생충 감염

내부기생충으로는 선모충, 선충, 폐흡충, 사상충 등이 발견되나 밍크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원충에 의한 콕시디움 감염의 피해이다. 주로 내장 부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변을 발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구충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예방 될 수 있다.

## 6. 외부기생충 감염

외부기생충으로는 이, 음, 모낭충 등이 기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질을 떨어뜨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기생충임으로 유의하여 조기에 발견 구제토록 한다. 치료로는 벤졸벤조에이트 용액을 스프레이 하거나 약욕을 시키므로서 치료될 수 있다.

## 7. 중독

사료가 부패하거나 중독성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이를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며 화학물질 특히 외부기생충 구충제, 소독용 농약, 살충제 등이 흡입되어 발병되기도 한다. 또한 사료에 납, 비소, 카드뮴 등의 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발생하기도 하는데 증상을 보면 혼미상태, 우울증, 설사 등을 나타내고 임신중에는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유기물질의 부패로 인한 경우는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생선, 고기류 등의 부패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특히 불포화지방산의 산화가 중독의 원인이 된다.

## 8. 뇨로결석

방광이나 신장에 결석이 형성되는 경우이며

뇨중에 산성화를 막아 줌으로서 예방될 수 있다.

결석이 생겼을 경우에는 염화암모늄을 0.03~0.04% 정도를 사료에 첨가해 복용하면 효과적이나 7일 이상 계속해서 투여하지 말고 임신중일 경우나 번식기에는 투여치 않는 것이 좋다. 투여시 약간의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 9. 뇨실금 (Wet belly)

뇨로 주위가 항상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복부의 모질을 저하시키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않된다.

주로 번식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비만된 밍크나 지방축적이 과다한 밍크에서 많이 발견되며 치료·예방으로는 지방이나 단백질량을 줄이고 곡류의 량을 약간 늘려 급여하며 체중을 줄이도록 조절급식이 필요하다. 비타민 B제제 등을 주사하면 효과적이다.

## 10. 번식장애

불임을 초래하거나 발정지연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컷은 번식기에는 지나친 비육과 영양과다로 비만해지면 번식장애를 초래하므로 체중을 감량, 사육해야 하며 암놈은 비타민 E와 간 등의 사료를 급여하여 홀몬분비를 촉진토록 한다.

발정이 없는 밍크는 F.S.H.를 50~80I.E 또는 Fertagyl(Gonadorelin) 0.005~0.01mg 을 근육주사 한다.

## 11. 대사장애

주로 사료내에 필요로한 영양소의 결핍 및 과다로 발생되며 모피의 질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당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산화된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청어, 대구 등의 생선을 많이 급여하게 되면 황색지방증이 발병될 수 있으며 또한 비타민 E의 결핍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바다고기를 주로 공급하여 비타민 B<sub>1</sub>의 결핍이 우려되므로 간이나 곡류를 적당히 급여하도록 하며 그의 비타민 A와 미네랄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 결 론

밍크는 여우, 피치 등과 같이 모피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이므로 무엇보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vaccination을 철저히 실시하고 내·외부기생충 구충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주위환경의 소독과 위생적인 사료급여 시스템을 통해 전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사양관리를 통해 영양대사 장애를 예방하며 번식능력을 높여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화기질병 전문예방 치료제

# 스티뮤렉스<sup>®</sup>

## STIMULEX

스티뮤렉스는 Denmark의 BIOFAC 회사가 특수한 공법으로 개발한 순수한 제1위 내용물 추출제제입니다.

### 송아지 설사의 예방과 성장촉진효과

어린 송아지에 스티뮤렉스를 투여하면 설사 발생율을 96%나 감소시키며 제1위가 발달하게 되어 영양소의 소화흡수율을 증가시키므로 증체량이 20%이상 증가됩니다.

###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소화기 질병의 예방, 치료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식체, 소화불량, 고창증, 과산증,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질환을 탁월하게 예방, 치료하며 유량을 10%나 증가시킵니다.

### 소의 질병치료시 보조요법 및 도입우에서 효과

질병치료시 치료약품과 병용하여 투여하면 제1위의 기능이 활발해져 회복이 빨라지고 도입우에서도 이동, 사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식욕이 좋아지고 빨리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스티뮤렉스의 놀라운 효능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 한풍산업주식회사

HAN POONG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7층)

TEL 845-1171/4

\* 본사 학술부로 연락주시면 스티뮤렉스에 관한 기술자료를 보내드립니다.